

## 나의 착각(錯覺)



고 재 엽

스] 금으로부터 10년전이고 내가 회사를 창립한지 2년쯤 되었을때의 일이다. 우연한 기회에 日本 동경에 있는 S/W개발전문업체와 협력관계를 맺고(사원수가 100여명 정도의 그다지 크지 않은 회사) 일본의 S/W개발 PROJECT에 참여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다.

그 당시에 우리회사에는 이렇다 할 좋은 PROJECT가 없어 전전  
·궁금하던 때였으므로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달려 한

---

학력 : • 66~78 한국산업은행 • 78~86 (주)삼미/ 삼미전산(주) • 86~88 현대전산(주) 대표이사/  
사장 • 88~현재 동명컴퓨터 대표이사/사장

Step의 Program이라도 더 수주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였었다. 마침 그 회사는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H/W, OS 및 개발 TOOL등이 우리와 동일한지라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가능하면 많은량의 일감만을 원했으며, 작업장소도 한국에서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실무작업에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했었다.

### 품질과 생산성의 문제

우리회사의 SAMPLE PROGRAM(PGM)을 검토한 그들은 우리 PGM의 품질이 극히 좋지 않으며 PGM의 구조상 생산성이 너무 저조하여(일본의 1/10정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믿지않았다. 그당시 우리 나름대로는 표준화된 PGM을 만들고 있었으며, 특히 일본에 보내는 SAMPLE PGM은 더욱 정리된 것을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나도 20년 정도 전산을 했었고 10년이상된 전문직원이 10명 이상있었으므로)

나는 일본측에서 가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미리 우리측의 '氣죽이기 작전'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그들과 재협상을 하기 위하여 그들의 실상을 파악했었다. 그러나 실상을 보는 순간 나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우리회사가 알고있던 지식의 대단함은 나의 큰 착각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 PROGRAM의 PATTERN化

Model House 없이 대량의 APT를 처음 짓는것과 같은 작업을 하느냐고 우리측에 심한 꾸지람조의 항의같은 불만을 해왔다. 우리도 사실은 그당시 PATTERN化 된 PGM을 사용하고 있기는 했다. 그러나 각 팀별로(파별) 또는 개인별로 자기나름대로의 PATTERN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 뿐이었다. 사실상 회사차원에서 본다면 큰 의미가 없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전사원이 동일한 PATTERN PGM을 사용하지 않는 한 전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겨우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18개의 완벽한 PATTERN化 된 PGM을 미리 만들어 놓고(입력 6, 조회 6, 출력 6, 각종 SUB PGM) 모든 PROJECT를 동일한 패턴을 이용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누가 만들던 동일한 PGM을 만들 수밖에 없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셈이었다.

오류는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하루에 십수본에서 수십 본의 PGM을 대량 생산할 수 있고 가동후에도 담당자에 관계없이 어느 PROJECT의 어느 PGM이 던지 Maintenance(M/A)가 가능하게 되므로 생산성면에서 크게 향상된다는 계산이 되는 것이다.

## PGM을 외워라

이 회사에 입사하는 사원은 무조건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야 한

다. 교육내용은 PGM을 외우는 일이다. PATTERN化 된 PGM(화면 및 출력폼 등도)을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한다. Programmer는 PGM을 제작할 때 Logic을 생각하며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PATTERN PGM을 불러 복사하는 방식으로 (NAME정도 변경) 생산하기 때문이다. (1년경력자나 수년경력자의 품질과 생산성이 거의 동일함) SYSTEM CONSULTING 및 설계하는 고참(Senior)들도 물론 PGM PATTERN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설계사와 PGM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벽돌을 모르고 건축 설계를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론이라는 것이다. 하여튼 그 사람들은 설계, PGM, 화면폼, 출력폼, 파일설계 등 모두가 패턴화되어 있어 신규업무를 개발한다해도 개발의 모든 도구와 방법은 준비된 패턴을 이용하므로 생산성은 우리의 열배 이상 높고 오류(특히 Logic오류)는 거의 없었으며, 가동 이후에도 M/A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그 회사 사장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은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사원을 퇴직시키는 일이다. 새로 작성되는 모든 설계서와 PGM을 수시로 검사하여(자기 단말기로)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삭제시키고, 해당직원에게 가혹한 벌이 내려진다. 따라서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 회사에 재직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었다. (회사를 장기적으로 망하게 하는 敵軍이라는 것) 어쨌든 우리는 그 당시 이 회사의 모든 PATTERN을 그대로 배웠으며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회사와 협력해야 하므로)

이제 와서 회고해 보면 그때로서는 우리회사의 SYSTEM 개발에 있어서 크나큰 사상전환(思想轉換)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이와같은 개발사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다.